

석유화학 수익둔화 징후 뚜렷하다!

굿모닝신한증권, 마진 스프레드 축소양상 ... GS · 호남 · LG · KP 중립

굿모닝신한증권은 5월16일 석유화학업종의 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방어적 태도를 취하라고 권했다.

굿모닝신한증권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인 정유·석유화학기업(GS홀딩스 제외) 영업이익이 1/4분기에 1조577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.2% 늘었지만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어 전망이 어둡다고 진단했다.

정유는 원유 가격이 올랐지만 정유설비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벙커C유 가격이 하락해 정제마진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.

또 예상과 달리 정제유 수요가 공급 증가분을 흡수할 만큼 강하지 못하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2/4분기 이후에도 영업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.

이에 따라 SK, LG화학, KCC, 한화석유화학, 제일모직,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는 <매수> 투자의견을 내지만 S-Oil, GS홀딩스, 호남석유화학, LG석유화학, KP케미칼에 대해서는 <중립> 의견을 제시했다.

<화학저널 2005/05/17>